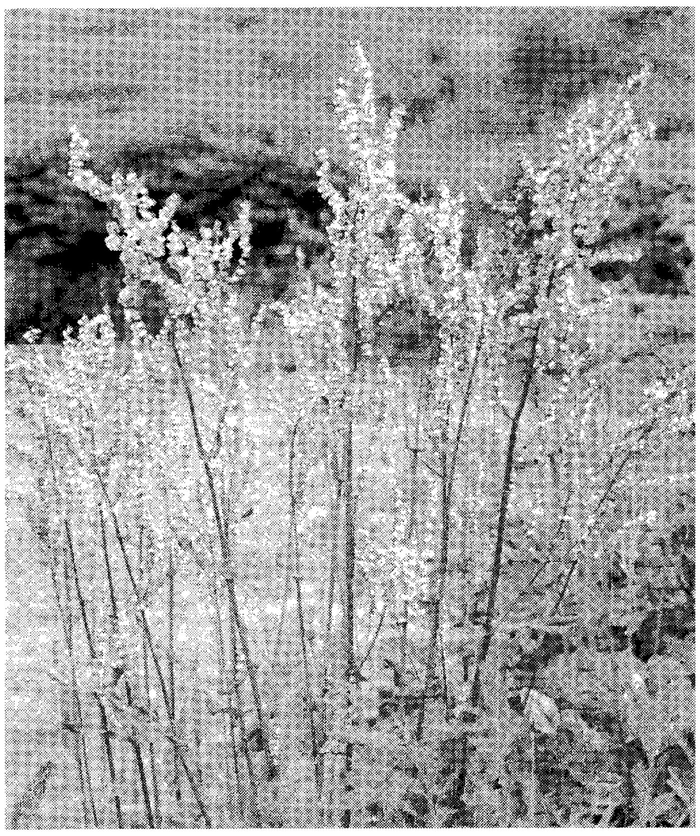
최진규의 토종약초 이야기 ③

길가에 흔한 위장병 묘약 - 수영

뿌리와 줄기는 짓찧어 즙을 내 피부병이나 옴 부위에 바르면 효과

꽃을 따 말려 달여 마시면 위장이 튼튼해지고 열을 내린다

생즙내어 상처난데 바르면 피를 멎게하는 지혈작용도



수영은 우리나라 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풀이다. 길옆이나 논 밭둑, 풀밭 등에 여러포기씩 무리지어 난다. 잎의 생김새가 시금치와 비슷하고, 또 맛이 시큼하기 때문에 시금초 또는 산시금초, 신검초 등으로 부른다. 잎이나 줄기를 먹어보면 맛이 매우 시다. 어린 줄기나 잎을 시골 아이들이 꺾어 즐겨 먹는데 민간에서는 살짝 데쳐 나물로 만들어서도 더러 먹는다. 잎이 연하기 때문에 먹을 만하지만 맛이 시어 많이 먹지 못한다.

수영은 여뀌과에 딸린 여러해살이풀로 괴상아, 괴시양, 산모(酸模), 산대황(山大黃), 산황(酸黃), 녹각설(鹿角舌), 산양제(山羊蹄) 등의 여러 이름이 있다. 이른 봄에 굵은 뿌리에서 긴 잎자루를 가진 잎이 자라나와 둥글게 땅을 덮는다. 줄기는 잎 가운데서 길게 자라 나오는데 줄기에서 나는 잎에는 잎자루가 없다. 잎은 긴 타원꼴 또는 피침꼴로 밑동은 깊게 파여 있고 끝은 뾰족한 편이다.

잎 가장자리로 약간 주름이 잡히고 톱니는 없다. 잎은 녹색이지만 잎자루와 줄기는 붉은 빛이다. 4월말에서 5월초에 꽃줄기가 50센티미터에서 1미터쯤 자라나와 이삭 모양의 작은 꽃이 모여서 핀다.

꽃은 엷은 황색으로 그다지 아름답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꽃을 보기 위하여 화단에 심는 사람도 더러 있다. 열매는 7~8월쯤에 익는데 둥글고 납작하게 생겼으며 줄기 끝에 주렁주렁 달린다. 수영은 열매의 모양이 특이하여 사람들의 눈을 끈다. 가지 끝에 가장자리는 분홍빛이고 안쪽은 녹색인 둥글둥글 하면서도 납작한 열매가 수없이 달려 바람에 대롱거리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다. 꽃에는 꿀이 많아 양봉업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

수영은 예로부터 더러 민간약으로나 한방약재로 써왔으나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는 약초는 아니었다. 옴이나 피부병·비듬 등에 뿌리나 잎을 짓찧어 붙이고 방광결석이나 피를 토할때, 또는 오줌이 잘 안나오는 증세 등에 달여서 먹었다.

굵은 뿌리를 캐어서 반찬으로 먹는 사람도 있으나 신맛이 강하여 많이 먹지는 않는다. 〈약용식물사전〉에는 '신선한 뿌리와 줄기는 짓찧어 즙을 내어 옴에 바르면 효과가 있고, 꽃을 따서 말려서 달여 마시면 위장이 튼튼해지고 열을 내리며, 생즙을 내어 바르면 상처난데의 피를 멎게 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본초강목〉에는 '수영은 어린아이의 열을 다스리는데 그 싹을 따서 날로 먹거나 즙을 내서 먹이면 신맛이 있어 먹이기가 좋고 효과도 좋다'고 적혔다.

그런데 최근 아무데나 흔하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 풀이 위궤양, 위하수, 소화불량 등을 치료하고 위장을 강화하는데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수영의 성분은 뿌리에 크리소판산과 칼리움옥살레트, 수산, 타닌, 옥시메틸안스치라논 등이 함유되어 있어 해열, 지갈, 이뇨 등의 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이 흔하디 흔한 풀로 갖가지 위장병을 간단하게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수영은 우리나라보다는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에게 관심이 더 많은 풀이다. 영국·프랑스 등에서는 수영을 관상식물로 정원에 많이 가꾸고 있을 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만성위장병 등의 성인병에 좋다고 하여 생즙을 내어 흔히 마신다.

수영을 이용한 요리도 몇가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수영과 다른 몇가지 야채를 함께넣어 만든 수프는 별미로 꼽힌다.

수영을 민간에서 약으로 쓴다. 민간요법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1. 기생충

수영을 뿌리째 뽑아 말린 것 20g에 삽주뿌리 20g을 한데 넣고 물 2백 밀리미터를 넣고 달여서 찌꺼기를 버리고 빈속에 먹으면 회충이 다 없어진다.

2. 방광염

신선한 수영 한줌에 물을 적당량 넣고 달여서 절반쯤 되게 한다음 그 물을 하루 세번에 나누어 밥먹은 후에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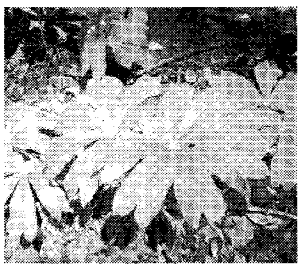
3. 부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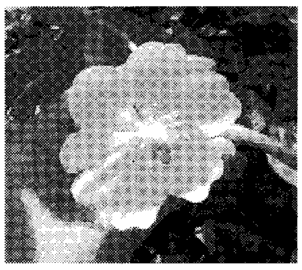
2~3개월에 수영뿌리를 캐내어 그늘에 말린 것 20g에 물 한사발을 넣고 반사발이 될때까지 달여서 하루 세번에 나누어 먹는다. 또는 달인 물로 온몸을 씻어도 좋다.

서유럽에서 인기있는 생약재 ④

- 포도필룸

미 국립암연구소, 항암제로 개발 뿌리가루 피부종양 치료에 사용





포도필룸(Podophyllum peltatum)은 매자나무과에 속하는 높이 50cm에 이르는 여러해살이 풀로서 잎은 손바닥 모양으로 갈라졌으며, 봄철에 흰꽃이 핀다.

이 식물은 5월의 사과(mayapple)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악마의 사과, 인디안사과, 우산식물 등 다양하게 불리우며, 카나다와 미동부(오크라호마 등)의 산림지대에서 자생한다. 이 식물은 옛부터 극약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미국 국립 암 연구소의 연구에 의해 항암제로 사용이 시작되었다.

이 식물의 뿌리는 포도필로톡신(podophyllotoxin)과 펠타틴(α, β peltatin)이라는 항암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또한 매자나무과 식물에는 말라리아와 같은 열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베르베린(berberine)이라는 물질이 또한 함유되어 있다. 아시아지역에 자생하는 에모디(P. emodi)와 필레이안둠(P. pleianthum)은 이들 물질의 함량이 적게 함유되어 있다. 북미에서는 이들 뿌리를 가루 내어 설사 유도제(하제, 下劑)로 이용하거나 회충방제약으로 사용하였으며, 가루는 피부종양 치료를 위해서도 사용되었다. 현재에도 이 식물은 피부 종양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필레이안둠(P. pleianthum)으로부터 하콰쿠렌(Hakkakuren)이라는 물질을 추출하여 뱀에 물렸거나 생식기암 치료제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이 식물의 뿌리는 너무 독성이 강하여 미 식품의약국(FDA)으로 부터 "주의를 요하는 식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식물을 재배할 시에는 매우 주의를 요하며, 사용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겠다.

귤껍질로 심장병 · 간질환 예방

농림부, 생명공학연구소 신물질 추출성공 … 상품화 채비

귤껍질 추출물에서 심장병과 간질환 예방효과가 뛰어난 신물질(JBB-1)이 개발돼 본격 상품화된다.

특히 이번 귤껍질 추출 신물질은 사업체에 기술이 전돼 상품출시에 따라 연간 1백만톤의 감귤류 원료소비가 예상돼 농가 출하안정은 물론 소득증대 효과도 클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와 생명공학연구소(소장 복성해)는 지난 17일 농림기술개발과제로 개발한 귤껍질 추출 신물질(JBB-1)을 벤처기업인 (주)바이오맥스(대표 박진우)에 기술이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물질은 인체에 무해한 천연성분으로 체내 콜레스테롤 생합성과 흡수를 낮춰주는 등 중풍 고혈압 동맥경화 등 각종 심장병과 간질환 예방효능이 탁월하고 미국 FDA에서 공인돼 수출전망도 밝다는 것이 농림부의 설명이다.

바이오맥스는 기술이전과 함께 신물질 관련제품을 생산, 연간 80억 규모의 세계 고지혈증 의약품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